

원치 않는 현실에서 마주치는 연대와 위로

김정숙 교수의 필름에세이

미야케 쇼 감독
'새벽의 모든'

급변하는 현대사회를 살아내는 현대인들은 알게 모르게 불안 증세를 안고 살아간다. 그러다 보니 불면증이나 우울감 등은 흔한 증세로, '공황장애'나 'PMS' (월경전증후군) 정도만 해도 큰 질환으로 여겨지질 않는다. 그렇다 해도 공황장애나 PMS 증세를 겪는 당사자들은 치료를 요하는 자신들의 질환보다 더 괴로운 것이 자괴감이고, 더 무서운 것이 타인의 시선이다.

영화는 낡은 필름인 양 지글거림에서 시작된다. 첨단 디지털로 나아가는 시대에 낡은 아날로그 감성을 고집하려는 의도인 듯. 후지사(배우 카미시라이시 모네)는 갈수록 심해지는 PMS 때문에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신입사원으로서 실수를 범한다. 평소에는 예의 바르고 친절하며 조신한 그녀이지만 이때만 되면 극도의 날카로운 신경이 되어 짜증을 억제하지 못하는 것이다. 상사의 태블릿에 고스란히 녹화돼 있는 그녀의 상황은 본인이 결코 원치 않는 이중적 모습이다.



미야케 쇼 감독 '새벽의 모든'.

쥬미디어캐슬 제공

도망치듯 대기업을 그만두고 정착한 회사는 아동용 과학 키트를 만드는 '쿠리타 과학'이다. 중소기업이 그러하듯 회사 분위기는 가족적인 편이다. 어느날 신입인 아마조에(배우 마츠무라 호쿠토)의 사소한 행동에 후지사(배우 카미시라이시 모네)와 동료들의 만류로 상황이 마무리되고 후지사(배우 카미시라이시 모네)와 간식을 돌리며 이 작은 사회에 누를 끼침에 대한 사죄의 뜻을 표한다. 후지사가 되사보려는 주변인의 이해로 그런 대로 적응하고 있는 듯 보인다. 그래도 본인의 마음은 얼마나 괴로움에 얼룩져있을지 짐작이 간다. 그러던 어느 날, 발작 증세를 보이며 쓰러진 아마조에가 극심한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후지사(배우 카미시라이시 모네)와는 아마조에에게

동병상련의 우정으로 한발 다가선다. 대단한 스토리가 있다기보다는 있음직하지만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는 잔잔한 이야기를 감독이 섬세하게 주목하고 감독의 시선에 따라뚝고 큰 마음을 보탠 영화라는 생각이다. 마치 영화의 소품인 현미경과 망원경처럼 아주 작은 것을 들여다 보고 아주 먼 곳에 있는 우주를 끌어다 보는 것처럼. 급변하는 현대 사회를 살아내는 현대인들에게는 나름대로 크고 작은 증세를 안고 살아간다. 그러다 보니 '불면증' '중독' '공황장애'나 'PMS' 정도는 그다지 큰 질환으로 여겨지질 않는다. 일반적 시선으로는 그렇다 쳐도 정작 공황장애나 PMS 환자들은 치료를 요하는 자신들의 질환보다 더 두려운 것

이 사회적 시선이다. 그렇다면 후지사(배우 카미시라이시 모네)와 아마조에(배우 마츠무라 호쿠토)처럼 숨을 곳을 찾게 만드는 사회로 두어서는 안 된다. 영화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사람들의 모임처럼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주고 불안을 극복하는 커뮤니티가 중요해 보인다. 무엇보다 크고 작은 사회 내에서 이들에게 따뜻한 시선과 함께 무관심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만 일본 사회에서도 쿠리타 과학과 같은 회사가 어디 있느냐는 반응이라 한다. 원작 소설을 쓴 세오 마이코 작가나 미야케 쇼 감독이 자신의 작품에 이런 회사를 그린 것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증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고충을 알리려는 일반인들에게 쿠리타 과학의 구성원처럼 이들을 이해하는 시선으로 거두어달라는 당부가 아닐까 싶다. 미야케 쇼 감독은 원치 않는 현실로부터 숨어버린 존재들이 자신을 드러내고 서로다른 세계에 속한 이들과 공감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 그의 전작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 (2023)에서처럼 아날로그 시대의 유산을 통해 균열을 봉합하고 이해를 완성하려 하는 것이다. '새벽의 모든'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가운데 무언가 일어나고 있는 우리네 인생처럼 영화는 느리게 천천히 돌아간다. 타이틀에 담긴 '새벽'이 원제에는 '야명(夜明)'이다. 어두움과 밝음이 공존하는 새벽은 매우 희미한 빛을 품고 있는 한편 가능성이 내재돼 있다. 영화 대사에도 등장하듯 "해가 뜨기 전의 어둠이 가장 어둡다"면 고통스러운 만큼 고통스러운 나의 불행이란 곧 뭔가 잡힐 희망의 예비단계라 할 수 있다. 9월18일 개봉. 백제예술대학교 명예교수



보통의 삶



취재수첩
박소영
취재1부 기자
soyeong.park@jnibo.com

지난달 인하대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착취물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초·중·고등학교에서까지 관련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관련 더욱 강력한 처벌법을 쏟아내고 있다. 텔레그램 내에서는 인하대를 외에도

'○○겹지인방(겹지방)', '○○지능방(지인능육방)' 등 특정 학교·지역 이름을 앞세워 불법 합성물을 제작·공유하고 있었다. 해당 메시지 방에서는 교내 여학생, 여성 지인들의 얼굴에 나체 사진을 합성하거나, 목소리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주인님' 등 외설스러운 음성 파일을 만들어 내고 있다. 성인뿐 아니라 아동 및 청소년 대상 메시지방도 발견되는 등 초·중·고등학교에서도 관련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6일까지 올해에만 학생·교원 대상 딥페이크 피해 접수 건

은 총 434건으로 피해자는 317명에 달한다. 이중 인하대방에 대한 폭로가 있었던 지난달 28일부터 접수된 피해는 238건, 피해자 421명이다. 누적 피해자 95.3%(553명)가 학생으로, 이외로 교사, 직원이 있었다. 광주·전남에서도 한 중학생이 같은 학교 남학생을 신고하거나, 여고생들이 단체로 피해를 보았던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딥페이크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의 범위가 협소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있다. 관련 처벌 조항인 '성폭력범죄 처벌관한 특별법 14조 2'는 유포할 목적으로 제작했을 때만 처벌할 수 있어 단순 소지하거나 시청했을 때는 처벌이 어려워 '반쪽짜리 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조차도 'N번방' 사건 이후에 만들어졌다. 딥페이크 처벌에 대한 여론이 모아져, 국회에서는 지난 한달여간 30여개가 넘는 법안이 발의됐다. 대다수 유포하거나, 유포를 목적으로 제작했을 경우를 넘어 허위영상물을 소지, 구매, 저장, 시청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내용이다. 이외 아동·청소년에게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이용해 협박·강요한 이에게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입법도 추진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아동·청소년이 대상일 경우 3년 이상, 5년 이상 형량을 높인다. 또 경찰이 사전 승인 없이 경찰임을 숨긴 채 온라인 공간에서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는 조항도 담겼다. 끊임없는 기술의 발전으로 파생되는 그림자를 뒤쫓아가는 법들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다. N번방 사건으로 인해 만들어진 법 조항의 허점을 이제는 이해하게 되는, '시대 감수성'을 따라가고 있다는 청신호일 수도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삶으로, '나도 피해자일 수도 있겠다'라는 공포를 이해해 범죄 사실이 드러났을 때 피해자인 개인의 아주 사소한 보통의 삶이 우선시돼야 한다.

보약·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복교당 한약방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미세먼지 예방 (기관지 보호)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 5만원

무릎 관리 활기찬 삶! 산수유 두충 60포 ▶ 12만원

天下보다 귀한 생명!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과 마음의 편안, 음식조절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 (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062)369-9227